

구분	강북영광교회 주일강단
날짜	2024년 9월 1일
제목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본문	누가복음 23:26~49

녹취

• 서론

중요한 질문을 우리는 항상 하고 답을 내야 된다. 불신자들은 마귀자녀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영적 축복 이런 질문들 하지 않는다. 다만 오직 사탄, 마귀가 시키는 대로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성공, 성취, 전무 그런 거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쉽게 말하면 예수쟁이들 욕한다. 교회 다닌다고 다 되냐? 돈 생기냐? 사업 잘 되냐? 사업하지도 못하던데 하면서 비웃기도 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복음이 바울의 고백 속에 보면 복음이 이방인에게 거리긴 것이다.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거리끼는 것이다. 불신자들 다 그렇다. 그래서 불신자들의 질문 오직 그거다. 그런데 하나님 자녀 혹은 교회 다니는 자 신앙생활 하는 자들 질문이 달라야 된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맞느냐? 나는 정말 그리스도 답 냈느냐? 그런데 거의 잘 모르고 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 세상 사람들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 말이다.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같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답 나지 않았고 모른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오늘 본문 말씀처럼 거기는 바리새인이 앞장서있다. 바리새인 가운데 대제사장, 서기관 있다. 이들이 정말 한 가지 답 나고 믿으면 되는데 오직 그리스도 하나 몰랐다. 못 깨달았고 보지 못하고 귀 열지 못하고 그래서 믿지 못한 것이다. 그래

서 그리스도를 못 박기까지 오늘 본문에 나와있다. 한 개다. 정말 그리스도, 복음이신 그리스도 몰랐다. 그 답이 안 났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 그 목적 한 개다. 요 20:31 이 성경 이것을 기록한 것은 목적은 이 말이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 그리스도다. 그것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것을 알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리고 그 이름을 힘 입어 생명,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 66권의 핵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 그게 그리스도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복음을 주시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핵심이 무엇인가? 그리스도다. 멸망받지 말고 복음 되신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 복음 믿고 구원받아라. 멸망받지 마라. 그 말씀이다.

요 6:68 말씀에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그렇게 고백했다. 세상사람 무리들 예수님의 축제 속에 복음의 천국 복음 그리스도 즉 복음 전파하셨다. 그 말씀 핵심을 유념해서 각인, 뿌리, 체질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축제에만 떡 먹고 고기 먹고 기적 보고 그거만 보고 사실에 다 떠나간다. 이러할 때 예수님 물으신 것이다. 제자들 열두 사도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러니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되신 그리스도가 당신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어디에 가겠습니까?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다. 그리스도로 정말 답 난 것이다. 답이 났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리스도께 그리스도로 답 났습니다 그 말이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게 필요하다. 아니면 다 흔들린다.

그 대단하고 훌륭한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 서기관, 이

스라엘 장로들 이들이 대부분 지도자들이고 바리새인들이다. 완전 실패했다. 그 후손까지 지난 주일 설교에 선택이 나왔다.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바리새인이 그렇게 한 것이다. 대제사장들. 후대들까지 완전 실패로 이끌어갔다. 이유 하나다. 그리스도를 모른 것이다. 답을 못 낸 것이다.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랬다.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에 답 나야 모든 종교생활, 모든 재앙, 저주에서 사단의 손에서 해방된다. 불신자 하는 말이 있다. 하나님 자녀들은 그런 말을 복음 가진 자는 절대 안 한다. 그런데 불신자들을 그런 말 많이 하는 것을 듣게 되고 저도 들었다. 이상하게 안 된다. 되려고 하면 안 되고 또 말아먹고 또 실패하고. 이상하다. 많다. 거의 대부분 그렇다. 우리가 정말 불신자건 우리 건 하나님 자녀건 렘넌트건 답은 하나 나야 된다. 정말 그리스도 답이 나야 된다. 깨달고 오직 그리스도구나. 이 답이 정말 나야 된다. 저는 다락방 하면서 이 답이 저에게 왔다. 깨달아졌다. 머리에서 뭔가 빠져나오고 시원한 망치로 머리 맞은 거은 창 3:15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왕 되신 그리스도 깨달아질 때는 망치로 얻어맞는 듯한 충격이 왔는데 정말 복음, 그리스도구나 답이 났을 때 시원하게 아 그렇구나. 저와 여러분 정말 이 축복의 답이 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 본론

1.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 - 구약에 이미 예언된 내용

오늘 드디어 예수님 그리스도의 핵심사역 하시는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오늘 그 본문이다. 구약성경에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된 내용이다.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오실 것, 그리고 탄생, 그리고 모든 자라나는 과정 심지어는 모든 사역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는 모든 것 십자가 지심은 당연하고 심지어 부자의 무덤에 묻힐 것이다 그것까지 다 예언되어 성경대로 그래서 우리의 구원사역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또 부활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그리스도 핵심사역으로 십자가 사역하는데 고난의 잔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실제로 달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조롱, 희롱, 모든 갖은 고난을 다 당하시고 고난의 잔이다.

1) 창 3:15, 창 22:1-20, 출 3:18, 출 12장, 레위기 5대 제사

창 3:15 당장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예언되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십자가 사역을 말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말한다. 그게 벌써 예언되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테스트의 말씀 듣는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때 진짜 믿음으로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삭대신에 숫양을 숫양 수풀에 걸려 예비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벌써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다. 숫양 대신에 그리스도, 이삭 대신에 숫양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벌써 말씀하셨다. 그것을 예비하셨다. 여호와 이레 벌써 하나님께서 복음을 벌써 예비하셨다. 이제 그 실제 주인공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출 3:18, 출애굽기 12장 내용의 가장 핵심이 출애굽기의 핵심 내용이다. 율월절의 그 주인공, 양의 피, 어린양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양의 피를 문 설주 좌우 인방에 바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말한다. 그것을 바르라. 벌써 다 예언되어 있다. 레위기서에 5대 제사 소제 빼고 전부 다 번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싹 다 피를 흘린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다. 그래서 모든 죄와 모든 문제를 해결함 받는다.

2) 사 53장, 고전 15:3-4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 구약의 시간표마다 예언했다. 가장 정확하게 예수님 그리스도로 오시는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언했다. 그게 이사야 53장이다. 다 예언되었다.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처음부터 구약시대 때 예언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장 아담과 하와 우리 인류 첫 시조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때 만들어서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니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창세전에 예비하셨고 영세 전에 벌써 다 아시고 복음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당장 복음을 주셨다. 그리고 계속 말씀하셨다. 드디어 이사야가 사 7:14에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과 특히 우리의 구속사역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다 담당하시고 대속하시는 십자가 사역 이사야 53장에 예언했다.

3) 그리스도가 누군지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라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 그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봐야 된다. 그 실제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공생애 사역을 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다음에 천국 복음 핵심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창 3장 원죄문제 하나님 떠난 근본문제 원인되는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재앙, 저주 이 배경에 역사하는 악한 사탄, 흑암세력 꺾는 정말 이 사역을 어디서 완성하셨는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보혈의 피를 흘리사 그리고 죽으실 때 선언하시고 부활하시고 이것을 완성하셨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친히 십자가에 매달리셨다. 본문 말씀 바로 그것을 가리킨다. 주로 성찬식 할 때 일 년에 한두 번 많으면

네 번 할 때 예전에 지금은 그런 성도님들 중직자 렘넬트 잘 못 봤다. 그때는 성찬식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고난 의미할 때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목사님 설교도 눈물 흘리시면서 하고 설교 말씀 들을 때 벌써 여기 저기 훌쩍훌쩍한다. 제가 있을 때도 시골 교회 아버지 목사님 계시는데 그때도 성찬식 하는데 여기저기서 제가 성가대 했는데 성가대 뒤에서 누가 훌쩍훌쩍 운다. 그만큼 감사, 감격했다. 우리의 영적, 마음 상태가 메말랐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정말 여기에 대한 감사, 감격이 있느냐?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된다.

얼마나 악한 사탄이 성공하고 있는가? 그리스도 복음 하나 모르게 이 복음의 핵심 되는 내용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이 복음 핵심 내용 모르게 복음 모르게 한다. 복음 없이하게 한다. 얼마나 성공했는지 전 세계 교회 무너지고 있다. 딱 한 개 복음 하나 몰라서 사탄이 역사하는데 사탄의 전략이 통했는지 그렇게 되고 있다. 한국 교회 무너지고 있다. 실제 문 닫고 있다. 성도들 떠나가고 있고 떠나간다고 하면 그렇고 무너지고 있다. 우리 후대들 못 살리고 있다. 우리 다락방 하는 교회는 그 거보다는 낫겠지, 모르겠다. 우리 후대들이 오직 그리스도 복음의 십자가의 복음, 오직 그리스도 복음으로 없애야 말이다. 주일학교 점점 문 닫고 있다. 한 개다. 우리가 선교하는 프랑스와 유럽의 교회들 건물로 있지 사람들 없다. 교회 무너지는 것이다. 한 개다. 그리스도 복음 이것을 잃어버렸다. 놓쳤다. 사라졌다. 영적문제 심각한 폭증시대 재앙, 저주, 우리 후대들 멸망 올 수밖에 없다. 정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정말 그리스도냐? 그 관점으로 진짜 봐야 된다.

그리스도의 의미 진정 아는가?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3직 즉 그리스도의 진짜 참된 실제 사역 주께서 어떻게 성취하셨는가?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길을 활짝 여셨다.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다. 참된 선지자. 그리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아담의 후손 마귀 자녀 죄인이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자도 해결하지 못한다. 왕, 실력자, 지혜자, 박사, 돈 많은 산업 성공한자, 재벌들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다. 죄인이다. 마귀 자녀요 원죄를 타고났다. 그런데 우리의 심각한 진짜 문제, 하나님 떠난 그 진짜 문제 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피로 해마다 매번 드리는 제사 속에 짐승의 피 흘린 그 피 아니고 이제는 자기 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단번에 한 번이다. 그리고 완전한 속죄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참된 제사장. 우리의 모든 죄를 싹 다 해결하셨다. 참된 제사장. 막 10:45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주셨다. 다 대속하셨다. 그다음에 우리가 절대 꺾을 수 없고 마귀 종노릇하며 속아 살았는데 원수 같은 사단 마귀 참된 왕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잔을 마시고 사역하실 때 사탄을 꺾으셨다.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십자가 사역에서 사탄을 모든 권세를 완전 꺾으시고 멸하셨다. 요일 3:8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공자, 석가 마귀 섬기는 종이니 마귀를 꺾는 그리스도 아니다. 예수가 그 그리스도시다. 오늘 사탄의 망대, 흑암의 망대가 완전 무너진다. 진짜 믿으면. 우리의 가정가문에 사탄의 망대 아직도 재앙, 저주의 망대 깊고 뿌리내렸다면 오늘 진짜 믿고 깨닫고 믿으면 무너지게 되어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사건뿐만 아니라 창세기 6장, 11장 이게 우리 인간의 문제다.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특히 피 흘리셔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다.

2.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 (요19:30)

두 번째다. 오늘 말씀에 십자가에서 실제로 다 이루었다고 했다.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다.

1) 실제로 십자가를 지심

실제 십자가를 지셨다. 소설과 신화에는 꾸며지고 픽션이잖아요? 가공해서 실제 그런 듯이 썼다. 소설도 원본으로 해서 영화로 만들고 한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구원주 되시고 부활하시고 성경의 말씀이 꾸며낸 게 아니다. 실제다. 오늘 말씀 보면 첫 째 공회 앞에 대제사장의 종교법정에서 재판, 심문, 고난 받으시고 두 번째 빌라도 법정 앞에서 그렇게 하시고 헤롯 왕 법정 앞에서 또 그렇게 하시고 실제로 빌라도 총독이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나는 무죄하다 손 씻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넘겨주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다. 군인들이 옛 전에 아버님 설교하실 때 눈물 흘리시면서 감정이 격해져서 설교하셨다. 예수님 옷을 로마 군인들이 벗겼다. 그리고 매로 심히 쳤다. 로마 군병들이 때리는 채찍에는 끝에 쇠가 달려있다. 치면 살을 찢는다. 당기면 피가 흐르고 살점이 찢긴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선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니깐 옷을 벗기고 그때 거의 반 죽는다. 기진맥진한다. 그리고는 머리에 가시관도 씌우고 그리고는 친히 십자가를 어깨에 지워서 골고다까지 예수님을 끌고 간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논픽션, 픽션이 아니다. 실제다.

그리고 빌라도 로마 총독인 빌라도 총독 때 그 사건이 일어났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사형되고 십자가 지시는 구속사역이 실제로 있었다. 그래서 처형될 십자가를 친히 지고 로마 군인들이 뒤에서 채찍 때리면서 가는데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데 요세푸스 역사학자다. 그 책에 예수님이 14번 쓰러지셨다. 그리고 그때마다 피를 토하셨다. 그만큼 실제 고통과 고난을 다 당하신 것이다. 그리고 행악자 두 명 강도도 사형받기 위해 같이 끌고 갔다. 역사적 사실이다. 골고다란 뜻은 해골이란 뜻이다. 즉 죽음이다. 사형 터다. 극악무도한 사형수를 사형하는 곳이다. 예수님 골고다 언덕에 가셔서 그리고 제 삼시에 십자가

에 못 박히신다. 손에 그리고 발목에 기록에 보면 그렇게 되어있다. 양손에 십자가에 못을 박고 발목에 거기가 못을 박고 제 삼시는 유대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다. 재판받으신 게 빌라도 법정에서 처음 선 게 새벽 6시다. 그리고 계속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제 육시에 그때부터 제 구시까지 어둠이 갑자기 임했다. 하나님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차마 아들의 고통을 구속사역 하시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바라보지 못하셔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셨다는 그런 의미로 어둠이 있었는지 제 구시까지. 제 육시는 정오 12시고 제 구시까지 임하고, 제 구시 즈음에 예수님 고통 속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크게 하나님께 소리쳤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 못 박힐 동안에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했다. 마태복음과 다른 복음서에 보면 무리들이 머리를 흔들고 이 말은 조롱한다. 머리를 흔들며 조롱하고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네 조롱한다. 그 조롱을 다 받으시고 로마 군인들도 희롱하며 비웃으며 옷을 제비 뽑아 나눈다. 로마 군인도 사형수 예수 하면서 조롱했다. 또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다 함께 그 사형터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보면서 원니스로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한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리스도라 그랬지? 십자가에 당장 내려와봐라. 그러면 먼저 너를 구원해, 그러면 진짜 내가 믿었어하면서 조롱을 다 했다. 심지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오른편 왼편에 강도가 둘이 달렸는데 왼편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까지 그리스도를 비난했다. 너를 구원하고 나도 좀 구원해 봐 조롱이다. 모든 조롱, 고난 다 받으셨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며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숨을 거두셨다. 그때 그 시간이 구시다. 십자가에 매달리는 시간 6시간 동안 보통 십자가에 달리는 사형수는 하루 이상 넘기고 오래가면 3일 간다고 한다. 그 고통 속에 주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드립니다하고 숨을 거둘 때 큰 지진과 천둥 번개가 일어나고 무덤 문이 열리며 무덤 문에 자는 성도들이 살아나는 역사도 일어나고 그랬다. 이 일로 로마군인들이 둘러섰는데 많은 사람들이 둘러섰는데 전부 두려워 떨고 땅에 엎드렸다. 이때 로마 백부장이 불신자다. 이 로마 백부장이 이 일을 보더니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불신자가 고백하는 것이다. 정말 죄 없으신 죄패 쓴 대로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란 말인데 정말 그리스도시구나 고백했다.

2)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짐

이때 예수님 그리스도로 십자가 사역 감당하시고 운명하실 때 이게 또 중요하다.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예수님 요 19:30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는데 정말 창세기 3장 원죄 문제 해결을 위해 구원의 모든 언약 십자가에 자기 피로 해결하셨다. 남김없이 다 끝내셨다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3직이 완성되었다. 참된 왕 되셔서 사탄을 꺾으시고 참된 제사장으로 우리의 죄 문제 다 해결하시고 참된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 요 14:6 그 말씀 그대로 성취하셨다.

히 10:19-20 말씀에 찢어진 휘장 사이로 새롭고 살 길을 열어놓으셨다. 찢은 휘장은 그리스도의 육체 즉 몸을 가리킨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완전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얻었다. 얼마나 감사한가? 휘장 사이로 새롭고 살 길을 완전 열어놓으셨다. 복음, 우리는 칼빈주의 장로교 칼빈주의라고 한다. 칼빈주의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제일이고 칼빈주의 복음에서는 이를 두고 복음으로 해석한다. 만인 제사장주의. 목사님이든 평신도든 장로님이든 렘넌트 누구든 할 것 없이 죄인, 멸망받아야 될 자, 마귀 자녀가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

가의 보혈의 이 복음 믿고 즉 예수 그리스도 믿고 정말 구원받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휘장 사이로 즉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게 만인 제사장 주의다. 우리는 이게 진짜 복음이다. 아멘인가? 그런데 천주교 종교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사제, 그다음에 신부들 그다음에 마리아를 통해서 신부 앞에 가서 하나님께 직접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즉 복음 붙들고 나아가면 되는데 구원받는다. 하나님 은혜받는다.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된다. 그런데 천주교는 종교인데 그것을 신부를 통해 고해성사를 통해 한다. 이게 아니다. 그다음에 마리아는 공동 구세주라고 한다. 그리스도와 마리아는 공동 구세주다, 아니다. 사탄을 꺾으시며 우리의 죄 문제 완전 해결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완전한 유일한 구원의 주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인가?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된다.

• 결론 - 그리스도의 십자가 비밀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이 비밀 오늘 깨달을 뿐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완전 답이 나고 오직 유일한 우리의 구원주 오직 그리스도임을 진짜 오늘 이 시간도 또 답을 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인간의 근본 결정적인 근본문제 창세기 3장 원죄 문제, 롬 3:23 하나님 자녀된 것이 아니고 마귀 자녀된 요 8:44 다 끝났다.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비밀을 깨달으며 우리의 모든 원죄, 그리고 원죄로 인한 모든 재앙, 저주, 이 배경에 역사하는 사탄 완전 꺾인다. 끝났다. 정말 승리하시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조상들 마귀 자녀로 계속 마귀 섬겼다. 재앙, 저주 속에 사망의 법에서 종노릇하며 살았다. 완전 본질상 진노의 자녀 가정, 가문이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또 우리가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무엇인가?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영적 재앙저주 모든 우상숭배 죄, 모든 영적문제, 가정감누에 흐르는 모든 영적인 문제 이게 해결된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개인과 우리 개인과 우리의 가정에 영적문제 정말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의 비밀 깨닫고 믿고 누릴 때 다 끝나는 것이다. 승리하게 되시고 바울처럼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이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오직 증인 되는 모든 주의 성도님 되시고 우리 교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진짜 문제, 창세기 3,6,11장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 다 해결하시고 끝내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정말 다 이루시고 끝내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주 오직 그리스도 되시 오니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들 오직 그리스도 되게 하시며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바울과 같이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완전 답이 나고 끝이 나고 오직 이 일에 증인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237 5천 종족, 이 시대와 미래 재앙을 막고 치유하고 살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